

디지털 신산업 육성 거점공간 마련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지 전면에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신축·입주기업 모집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업을 키울 거점공간이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지 전면에 신축되는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완산구 아중로 33)에 입주할 ICT 신산업분야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이달 말 완공 예정인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37억 원 등 총 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9200㎡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29개 기업 입주실과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옥상정원 등의 시설 및 공간을 갖췄다.

또한 냉방 시설 등 쾌적한 사무환

경, 무료 인터넷 서비스, 기업 간 협업을 위한 회의공간, 기업 얼라이언스 운영 및 기업지원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으며, 전주도심 한복판인 노송동에 위치해 최적의 접근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입주 대상기업은 △SW/HW 개발·제조 △사물인터넷(IoT) 등 온라인 플랫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융합기술(XR)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계획이 있는 우수 ICT분야 기업으로, 별도의 입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 입주는 오는 5월 중순부터 가능하며, 임대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에 평가 후 2년 단위로 총 3회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www.jca.or.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메일(joy@jca.or.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입주 부담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기반지원팀(063-281-4166, 4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가동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기존 조성된 IT벤처센터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실 등과 함께 총 80여 개의 기업이 모여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춘 만큼 전북지역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ICT기업 집적단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추진대경제처장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우수기업 모집과 유치를 통해 기업 간 전략적·기술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전주지역의 ICT분야 융복합 거점센터로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이어 공사과정에서 발굴된 후백제 유물 등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신축 건물 1층에 후백제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공식 개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

전주시, 경기 침체·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운전자량 대비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 운전자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인한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들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빠른 시일 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촉구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1만1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7%p 상승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립 전북변호사회와 공조"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머리를 맞댄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변회는 이날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 하나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인프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 내 가정법원이 없다 보니 전주지역에서 혼인·이혼,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 보호사건 등도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천56건(연평균 1천706건)으로 집계됐다.

우 후보는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숲속 낭독공연'

전주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서 10월까지 시인·음악 예술인 초청 총 4회 진행

숲 속에 위치한 시집전문도서관에서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낭독공연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전주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시와 그림은 어떻게 만나 사람이 되는가'를 주제로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낭독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15일 열린 첫 낭독공연에는 부부시인인 김정배·강윤미 시인과 '이그르산 재즈 트리오'가 함께 참여해 시인이 추천하는 창작시를 소개하고, 뮤지션이 전하는 마음의 시를 음악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이번 공연에 이어 △이별을 시인·강아술 싱어송라이터가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6월 24일) △문태준 시인·뮤지션(8월 24일) △김이름 시인·정민아 가야금 연주자(10월 2일) 등 유명 시인과 뮤지션을 초청한 낭독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음악이 흐르는 '숲속낭독공연'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또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063-714-3525)을 통해 공연 시작일로부터 3주 전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714-352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낭독공연에 참여한 김정배 교수(원광대 융합교양대



전주시는 지난 15일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전주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시와 그림은 어떻게 만나 사람이 되는가'를 주제로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낭독공연을 진행했다.

학)는 글마음조각가로 알려진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02년 사이버신문에 시부문으로 등단하고, 2019년 월간 '시인'에 '신인문학상' 평론 부문에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평집 '나는 시를 모른다', 원손그림 시화집 '이별 뒤의 외출' 등이 있다.

강윤미 시인은 200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2010 문화일보 신춘문예의

시 부문에 당선됐으며, 저서로는 시그림책 '엄마의 셔츠', 시그림 아트북 '이상형과 이상향'이 있다.

함께 공연을 완성한 이그르산 재즈트ριο는 박윤호(베이스)·노용현(드럼)·오은하(피아노) 등 3인이 전복 익산에서 처음 만나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에 의미를 담아 지명을 밴드명칭으로 활용하고 있는 밴드로, 현재 전주와 익산, 순창 등 전라

북도 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희망과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시인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를 미래차산업 메카로 만들겠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5기 완주군수(사진))는 지난 15일 정책발표를 통해 "미래차 관련 인력육성과 부품종별 기지화 등을 통해 전주를 미래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2.1.6.)과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선정의 이점을 살려 미래차 정비사를 중점 육성하고 전기·수소차 정비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전주에 미래차 정비사 육성센터를 건립해 VR 전기 수소차 정비실습에 필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의 자동차 정비관련 일자리를 미래차 정비인력에 맞게 전환하는 교육장소로 특화시켜 이 분야 부품업체와 정비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차 전용 녹색산업단지 재생과 미래차 지식산업센터, 전기수소차 정비파크, 미래차 전시판매센터도 집적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임 출마예정자는 "미래차 생산에 필수적인 탄소소재 산업(전주)과 수소차 관련 기업(완주), 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이 들어서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여건은 성숙돼 있다"며 "전주 미래차 생산과 정비를 위한 고급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인력도 미래차로 전환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개 지지"

전주지역 청년 경제인 127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가져

전주지역 청년 경제인 127명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전주에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청년 경제인 127명은 지난 15일 전주시청 3층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청년 경제인들은 "전주가 청년이 머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돼야 한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라며 "청년들과 함께 호흡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울 수 있는 적임자"라면서 조지훈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끝끝내 해내는 경험을 축적한 사람, 사심 없이 일할 깨끗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조지훈 예비후보가 바뀌면 전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경제인들은 특히, 현재 청년들

이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 유일한 전주시장 예비후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전부가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을 키우고, 청년의 미래를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청년 경제인들은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의 미래를, 전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실시

중노송2지구 등 7개 지구 400필지 대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7개 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으로,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2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다.

올해 사업대상지역은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촌2지구 등 총 7곳으로, 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지역 400필지(125만5029㎡)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향후 해당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친 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서 신청

전주시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지난해 벼를 재배했지만 올해는 벼 이외의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 작물의 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두류)을 재배한

농가에 1ha당 60만 원씩 지원해주는 논타작물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논타작물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40kg 기준 150포대/ha), 두류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생산 및 수급 안정과 전주시의 감축 목표 면적인 88ha 달성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